

【보도자료 모음】

서울매일

2015년 12월 07일 (월)
05면 지역

명화가 있는 골목길 '일석이조'

성동, 홍익동 한신맨션 담장 환경개선 사업 완료

박건화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5년도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사업'의 일환으로 홍익동 한신맨션 담장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등 주택 밀집지역의 오래되고 낡은 담장에 밝고 깨끗한 디자인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길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전문 디자인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명화가 있는 골목길' 테마가 최종 선정됐다.



구는 습하고 틈새가 있는 담장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벽화기법을 활용하되, 주요 개체는 부식되지 않는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해 부조형식으로 제작했고, 중앙에 위치한 철문은 콘크리트 담장과 이질감이 없도록 도색했다.

담장 환경개선 사업의 완료로 지역 주민들에게 불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로 인한 범죄 발생도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동구**는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에 도입해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5.4 X 10.8 cm

우리일보

2015년 12월 07일 (월)
07면 지역

'명화가 있는 우리 동네 골목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5년도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사업'의 일환으로 홍익동 한신맨션 담장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등 주택 밀집지역의 오래되고 낡은 담장에 밝고 깨끗한 디자인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길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2015년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전문 디자인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명화가 있는 골목길' 테마가 최종 선정됐다.

구는 습하고 틈새가 있는 담장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벽화기법을 활용하되, 주요 개체는 부식되지 않는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여 부조형식으로 제작했고, 중앙에 위치한 철문은 콘크리트 담장과 이질감이 없도록 도색했다.

엄정애 기자

8.9 X 8.0 cm

이번 환경개선 사업으로 한신맨션 담장이 '명화가 있는 골목길'로 화사하게 변해 눈길을 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등 주택 밀집지역의 오래되고 낡은 담장에 밝고 깨끗한 디자인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길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전문 디자인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명화가 있는 골목길' 테마가 최종 선정됐다.

구는 습하고 틈새가 있는 담장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벽화기법을 활용하되, 주요 개체는 부식되지 않는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해 부조형식으로 제작했다. 담장 환경개선 사업의 완료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로 인한 범죄 발생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태우 기자 nice@siminilbo.co.kr
10.0 X 10.7 cm

홍익동 한신맨션 담장에 디자인

성동구, 주민과 테마 선정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2015년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홍익동 한신맨션 담장 환경개선을 최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성동구, 명화가 있는 우리 동네 골목길

홍익동 한신맨션 담장 환경개선 사업 완료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5년도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사업'의 일환으로 홍익동 한신맨션 담장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단독·다세대 등 주택 밀집지역의 오래되고 낡은 담장에 밝고 깨끗한 디자인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활기찬 골목길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했다.

2015년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전문 디자인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명화가 있는 골목길' 테마가 최종 선정됐다.

구는 습하고 틈새가 있는 담장의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벽화기법을 활용하되, 주요 개체는 부식되지 않는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하여 부조형식으로 제작했고, 중앙에 위치한 철문은 콘크리트 담장과 이질감이 없도록 도색했다.

담장 환경개선 사업의 완료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로 인한 범죄 발생도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사업 전



△사업 후

거둘 수 있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성동구는 이야기가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에 도입해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창균기자 cgkang@sidaeilbo.co.kr

10.3 X 14.7 cm

성동구, 흥익동 한신맨션 담장 환경개선 사업 완료

‘2015년도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사업’ 일환.. 빗치예방법 효과도

2015년 12월 04일 (금) 10:35:33

김광호 기자 news@hg-times.com

[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5년도 주민과 함께하는 골목길 사업’의 일환으로 흥익동 한신맨션 담장 환경개선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층 다세대 등 주택 밀집지역의 오래되고 낡은 담장에 밝고 깨끗한 디자인 벽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밝기찬 골목길 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했다.

지난 8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고, 전문 디자인 위원들의 자문을 통해 ‘연화가 있는 골목길’ 테마가 최종 선정됐다.

구는 습하고 틈새가 있는 담장의 하자율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벽화기법을 활용하되, 주요 개체는 부식되지 않는 아연도금 강판을 사용해 부조형식으로 제작했고 물위에 위치한 결문은 콘크리트 담장과 이질감이 없도록 도색했다.



담장 환경개선 사업의 종료로 지역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골목길로 인한 범죄 발생도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이어지가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에 도입해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news@hg-times.com

8.2 X 15.6 cm